



포스코이앤씨,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등 공사 재개

주변 상가 '반색'... 지역경제 '청신호'

안전점검 완료 사업장

28곳 공사 순차 재개

작업중단 17일 만에

재개 후 안전관리 만전

주변 상가 "공사 재개로

일대 상권 되살아날 듯"

〈속보〉최근 안전사고로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이 완료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전주 시내 서신동 감나무골과 기자촌아파트를 비롯한 광양현장 등이 포함돼 일선근로자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본보 8월 18일자 5면〉

특히 작업중단 17일 만에 공사가 재개되면서 현장근로자와 이 일대 주변 상가들은 일제히 반색을 하며 공사 재개를 환영하는 동시에 그동안 생계 및 경영난으로 겪었던 걱정근심을 말끔히 털어냈다.

21일 포스코이앤씨에 따르면 "안전점검 끝난 사업장, 공사 재개는 안전이 확보된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 서신동 감나무골 등 28개 현장(건축 21곳, 인프라 7곳)의 공사를 순차적으로 재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일 전국 103개 현장의 공사를 전면 중단하고 안전비상경계제에 들어간 지 17일 만이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재개 여부 사업장은 외부 전문가가 점검 및 개선 조치 확인, 안전관리 이행 점검, 최고 안전책임자(CSO) 승인, 관계기관과의 소통 등 5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전주 서신동 감나무골, 중노송동 기자촌을 포함, 인천 제3연륙교와 경기 고양 데이터센터, 서울 서초구와 대구 수성구의 공동주택 사업장 등이 우선 재개 대상이다.



최근 안전사고로 현장 공사를 전면 중단했던 포스코이앤씨가 안전점검이 완료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사를 재개한 가운데 전주 시내 서신동 감나무골과 기자촌아파트를 비롯한 광양현장 등이 포함돼 일선근로자들의 생계유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사진은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현장의 모습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공사의 장기 중단은 입주 지연, 도로·교량 등 사회기반시설 운영 차질, 협력사 및 근로자 생계 위축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사안"이라고 작업 재개 배경을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공사 재개 이후에도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며 그룹안전특별진단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진단기관이 참여해 전 현장을 다시 점검한다.

현장소장이 매일 안전을 확인한 뒤 '안전작업장 선언'을 해야만 작업을 개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동식 CCTV를 추가로 설치해 2,000여 대로 확대하고, 본사 직원 200명을 현장에 상주시켜 안전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시 서신동 감나무골 현장 근로자인 김영호(55)씨는 "지난해부터 잘

돌아가던 공사가 타지역 현장에서 근로자들의 사망사고로 이어지면서 갑자기 공사현장을 닫게돼 그동안 산입에 거미줄치는 식으로 가족들의 생계가 막막했다"며 "그나마 17일만에 공사가 재개된다는 소식을 들어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며 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하고 작업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전주시 중노송동 기자촌에서 식당업을 하는 유영갑(58)씨는 "공사현장문을 닫게되면서 그동안 자주 오던 근로자들의 발길이 뜸어져 가게를 접어야 할지 말지를 놓고 고민을 많이한 가운데 그 고통은 그 누구도 생각지도 못할 것이다"며 "이제 공사가 재개되면서 이 일대 상권이 되살아나 경제활성화에도 상당한 도움이 예상되는 만큼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소방 "자연발화 화재 주의"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최근 폭염과 폭우가 이어지는 고온다습한 환경 속에서 자연발화 화재가 증가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산업시설과 창고에서 절반 이상이 발생했을 뿐 아니라 주거시설에서도 사례가 확인돼 생활공간에서도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드시 실천해야 할 예방수칙으로 기름이나 유류가 묻은 걸레는 세척 후 건조해 폐기해야 하며, 폭발이나 사료처럼 발열 위험이 있는 물질은 통풍이 원활한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

또한 창고는 적층 높이를 제한하고 환기 통로를 확보해 내부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건조기 필터에 쌓인 먼지는 사용 직후 제거하는 것이 안전하며, 보관 장소에서 발열·냄새·연기가 감지될 경우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해야 한다. /이만호 기자

아시아태권도연맹 본부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

내달까지 마무리... 3일 사무공간 개소식 등 진행

아시아태권도연맹(Asian Taekwondo Union, 이하 ATU, 회장 김상진) 본부가 무주 태권도원으로 이전한다.

세계태권도연맹(WT)의 5대 대륙 연맹 중 하나인 아시아태권도연맹은 아시아 44개 국가의 태권도협회들이 회원국으로 소속돼 있는 단체로, 본부 이전은 단순한 장소 이동을 넘어 △국제스포츠 네트워크 강화, △국제대회 및 훈련 센터 시너지, △지역경제·관광 활성화, △세계 태권도 상징로서의 입지 강화 등 태권도 글로벌 발전을 견인할 단초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외에도 아시아태권도연맹은 △민간 공공 스포츠 외교 차원, △최고 수준의 국제대회 개최 용이, △연수원 및 훈련기지 활용 적합, △태권도 e-스포츠포화와 AI 접목 등 플랫폼 시너지 기대, △전북도와 무주군의 K-컬처 중심 성장 전략 구축 동참, △정부



무주군 설천면에 위치한 태권도원.

ODA사업 수행 용이성 등을 새 본부 이전지로 태권도원을 선택한 이유로 꼽았다.

아시아태권도연맹(ATU) 본부 이전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될 예정으로, 9월 3일 오후 5시 무주 태권도원에서 김상진 회장 이·취임식 및 ATU 사무공간 개소식이 개최될 예정이다.

/무주=전문선 기자

전북, 가을 축제의 바다로

9~11월 도내 14개 시·군서 잇따라 개최

전북자치도는 9월부터 14개 시·군에서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양한 지역축제를 연이어 개최하며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설 계획이다.

가을 축제는 9월 6일 익산 고구마(순)축제(6~7일)를 시작으로 △주무반딧불축제(6~14일), △장수한우랑사과랑축제(18~21일), △완주 오성한옥마을오픈가든축제(20~21일), △완주와일드&컬푸드(26~28일), △진안홍삼축제(26~28일)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맞이할 예정이다.

10월과 11월에는 전북 대표 축제들이 잇따라 관광객을 맞는다. △김제지평선축제(8~12일), △임실 N치초축제(8~12일), △군산시간여행축제(9~12일), △정읍구절초

꽃축제(14~26일), △순창장류축제(17~19일), △전주비빔밥축제(24~26일), △남원홍부제(24~26일), △고창도양성제(29일~11월 2일) 등 8개 시군 대표축제가 지역을 풍성하게 물들일 예정이다.

각 시·군은 고유한 먹거리·볼거리·체험을 내세운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북의 매력을 전한다.

특히 도는 야간 경관조명, 미디어아트, 불꽃놀이 등 야간 프로그램을 확대해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축제를 관광지와 연계한 전북투어버스 관광상품 운영으로 좀더 오래 머무를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바가지요금, 안전사고, 일회용품 없는 '3불 축제'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군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는 무주군의의회

새로운 변화, 함께하는 의정,
내일을 준비하는 무주군의의회가 되겠습니다

무주군의의회
MUJU-GUN COUNCIL

